

택시기사들 위해 '헤이 친구야' 만든 가수 김유성씨

“지치고 힘든 이들에 노래로 ‘삶의 희망’ 전해요”



“세상살이 힘들다고 두려워마라. 짠~하고 멋진 날도 있을 테니까~” 7080 가요계를 이끌었던 작곡가 겸 가수 김유성씨가 택시기사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 화제다. ‘헤이 친구야’란 제목의 이 노래는 사업에 실패하고 택시운전을 하며 재기를 노리는 친형(55)에게 바치는 노래다. 김씨는 오는 23일부터 15곡이 수록된 이 음반을 광주지역 택시기사 2000명에게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광주 택시기사에 무료 배포 계획

김씨는 1979~1981년 대가요계 대상과 은상, 동상을 수상한 ‘빙빙빙’과 ‘올보야’, ‘무지개꿈’ 등을 작사·작곡했다. 현재 김씨는 (사)광주 전남복합발전소 행복문화사업단의 ‘우리지역 일류가수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주·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씨의 음악에 대한 열정이 시작된 것은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웃집에 살던 친한 동생이 여름내 열병을 앓다가 죽고 난 뒤, 동생을 가슴에 품고 산에서 내려와 쓴 일기가 ‘올보야’의 가사가 됐다.

김씨가 가수로 데뷔한 계기도 이색적이다.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김씨는 1990년대 중반 경기 악화로 인해 부도가 나면서 공황장애를 겪었다. 당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김씨는 병원 휴게실에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평소 음악을 좋아했던 김씨는 병원 휴게실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김씨의 실력이 입소문이 나면서 환자들은 물론, 의사·간호사까지 김씨의 연주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가장 ‘잘 하는 일’이 바로 노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 운영에 전념해오다 최근에서야 다시 펜을 들었다.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형에게 힘을 주기 위해 노래를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사업 실패로 낮에는 택시기사, 밤에는 대리운

전기사를 하며 재기의 노력을 하는 형을 위해 다시 노래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쓰러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 보석같은 네 모습이 아름다워라~”라는 가사는 형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김씨의 마음이다. 김씨의 형은 동생이 직접 쓴 노래를 선물받은 뒤 재기의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빙빙빙’ ‘올보야’ 등 작사·작곡

김씨는 앞으로 형처럼 삶에 지치고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노래를 통해 ‘삶의 희망’을 전달하는 게 목표다. 또 콘서트와 음반활동은 물론, 노인복지관이나 터미널 등지에서 무료 공연을 통한 봉사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김씨는 “광주·전남 시민들의 사연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시민들 곁에 다가가고 싶다”며 “지역가수도 일류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전남대-日 고쿠시칸대 교류 협정 체결



전남대 김운수(오른쪽) 총장과 일본 고쿠시칸대학 아사쿠라 마사아키(왼쪽) 학장은 20일 대학 본부 접견실에서 학술교류 및 학생교환 협정을 체결했다. <전남대 제공>

와이즈멘 함평 셋별클럽 사랑의 쌀 기탁



와이즈멘 함평 셋별클럽 박종태 회장은 최근 축하회한 대신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펼쳐 관내 불우이웃을 위해 쌀달라며 10kg 쌀 50포대를 함평군에 기탁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소규모 학교 출신 직원 모교에 도서 기증

한국가스공사 호남지역본부

한국가스공사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김원배)가 전남지역 소규모 학교 출신 직원의 모교에 소속 임직원 명의로 도서를 기증해 오고 있어 화제다.

한국가스공사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김원배)가 전남지역 소규모 학교 출신 직원의 모교에 소속 임직원 명의로 도서를 기증해 오고 있어 화제다.

이번 모교 도서 보내기 추억나눔 행사는 한국가스공사 호남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 친화사업 중 하나로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실험적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으로 소속 임직원에게는 애사심 고취와 기부처 모교 어린이에게는 졸업선배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는 30~40년만에 교정을 방문해 은사와 후배 어린이와 함께 변화된 학교 교정을 돌아보며 여윌적 향수와 추억을 나누기도 했다. 김원배 본부장은 “일반 물품보다 책이 주는 효과가 어린이들에게 더 크다는 생각에 지난해부터 지속해오고 있다”며 “훌륭한 직원을 키워준 모교에 보답한다는 의미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의사회에 ‘행복나눔미 명패’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김필식·왼쪽에서 세번째)는 20일 오후 광주시의사회(회장 이정남·네번째) 회의실에서 ‘행복나눔미 명패달기’ 전달식을 실시했다. <사진>

‘행복나눔미 명패달기’는 후원을 희망하는 단체나 기업이 대한적십자사에 매월 2만원 이상 기부 약정을 할 경우, 적십자사가 행복나눔미 명패를 달아주는 캠페인이다.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5월부터 행복나눔미 명패달기 캠페인을 전개해 현재 5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병의원 21곳이 나눔활동에 참여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김필식 회장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의사회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기부를 통한 나눔의 문화가 절실해 행복나눔미 명패달기 캠페인에 보다 많은 병·의원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앞으로도 베푸는 삶 살겠다”

무등여성대상 수상 송희성 회장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금까지 그래왔듯 늘 나눔의 정신으로 봉사하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네요.” 지역 여성 운동 1세대로 꼽히는 송희성(72) (사)여성지도자연맹회 광주·전남회장이 광주여성상단체협의회(회장 김행자)가 수여하는 제18회 무등여성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화여대 국문과와 교육대학원을 거쳐 호남대 법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송 회장은 전남도의회 사상 첫 여성 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여성권의 향상을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가 50여년전 여성운동을 시작할 때는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얻은 성과들이 더 값진 거라고 생각해요. 여성 30% 할당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등은 참 보람있는 일이었죠. 또 북한 농민들에게 못자리 용 비닐 등을 보내주는 등 평화운동에도 함께 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5·18 민주화쟁 당시 남편과 구속되기도 했던 송회장은 “독립운동가인 아



것”이라고 말했다. 칠순을 넘긴 나이지만 송 회장의 행보는 여전히 바쁘다. 송 회장이 요즘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밥상머리 문화 교육’이다. “아이들과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서 하는 교육은 예의범절 교육이자, 환경교육이요, 또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이 존재하는 세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교육이죠. 올해다섯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앞으로 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광교회 장학금 1000만원 전달



대한예수교장로회 남광교회는 최근 교회설립 50주년을 맞아 동구지역 저소득 주민과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해 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동구청에 전달했다. <동구청 제공>

조선대 치과대학 봉사단, 무료 의료 봉사



조선대 치과대학 무료치과 봉사단(단장 김수관 학장)은 최근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대회회의실에서 ‘2010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광주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 및 가족 40명을 대상으로 무료치과 봉사를 실시했다. <조선대 제공>

내방

▲윤봉근(광주시의회 의장)씨 ▲이은방(부의장)씨 ▲정현애(부의

장)씨 ▲이준문(영양위원장)씨 ▲김영남(행정자치위원장)씨 ▲정희곤(교육위원장)씨 ▲문상필(환경복지위원장)씨 ▲김희진(광주시 북구 경제문화국장)씨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북성중 22회 동창회(회장 김경범) 월례회=22일(목) 오후 7시 운암동 오리명가. 062-525-5255.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자원봉사센터 어르신자원봉사단 모집=30일(금)까지 모집, 60세 이상. 예절교육, 학습도우미, 교통질서계도, 무료급식봉사, 공원 및 놀이터 환경미화, 문화유적해설, 숲 지킴이, 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기초질서캠페인 자원봉사활동. 문의는 국번없이 1365. ▲시민을 위한 미술치료무료강좌

=27일(화)~8월 6일(금) 오전 9시 30분~12시 마음을 그림으로 치유하는 미술치료(일반·교사·학생 남녀 노소 누구나 참여가능·수강료 무료) 일신중학교 평생교육원(교수 조정아) 011-610-6589.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등.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모집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대상자 모집=미술치료·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허브다이어트&주얼 회원 수시 모집=복부비만·근육유지·체질개선·미존이식주요법·암세포사멸·면역력상승·자율신경실조증·알레르기증상 개선·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070-8780-5901. ▲길라잡이 프로그램=(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성모사랑 노인 방문요양 센터 국비지원 가정 방문 노인도우미 이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사)녹색전국연합 전남시군지회장 모집=전남 시·군 전지역에서 환경정화사업에 관심있는 참신하고 의욕적인 자원봉사자 모집. 061-272-2207.

▲한국은퇴자협회 사회봉사 회원 모집=현직에서 은퇴 및 퇴직하신 분으로 중·장년의 인권과 권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헌신할 수 있는 외연 및 전남북지역 지회장하실

Advertisement for 'Mikho Restaurant' (미호장례식장) featuring a table with menu items and prices. Items include '해마테를남(남/7340)', '주/부림마음상/영모래', '해마테를남(남/7140)', and '주/부림마음상/영모래'. Prices range from 40,000 to 101,000. Contact info: ☎ (062)227-4000.

분 환원. 062-223-1357, 010-9773-2456

▲충만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오지 배드민턴 클럽 회원 모집=오후 7시30분~10시 30분까지 우산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문정 배드민턴 클럽 회원 모집=오후 7시30분~10시30분까지 문산초·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부음

▲장길영씨 별세 김경국·성현·일

Advertisement for 'Grin Restaurant' (그린장례식장) with a table listing funeral services and prices. Services include '김진희·김진희·김진희 씨 부친상', '김진희·김진희·김진희 씨 부친상', and '김진희·김진희·김진희 씨 부친상'. Prices range from 220,000 to 440,000. Contact info: ☎ (062)250-4455.